

제2회 페미니즘문화제 행사일정표

24일(월)	25일(화)	26일(수)	27일(목)	28일(금)
시네마페그 영화제 (매일 오후 3시, 5시)				
알리는 글-생협 가건물 앞 임시 게시판				
개막제	만 화	연 극	문 학	영 화
가정관 소극장	가정관 318호	'너의 자궁을 노래하라' 가정관 소극장	가정관 318호	'Antonia's Line' 가정관 소극장

〈초대권〉

제 2회 페미니즘 문화제의
개막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3월 24일(월) 오후 6시

장소: 가정관 소극장

제2대 이화여성위원회

* 초대권 없이도 입장 가능합니다.



제2회 페미니즘 문화제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3월 24일 ~ 3월 28일

주최 / 제2대 이화 여성위원회

후원 / 제29대 해방이화 총학생회

28년 외국어 교육의 선구자 파고다가 여러분곁에 있습니다

지구촌을 우리의 활동무대로 세계를 우리의 인재로 —

이 지구의 끝 남극점과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에
우리 태극기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올려 놓았던
파고다의 'CAN DO' 정신은
귀하를 반드시 외국어 정상에 올려 놓을것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과 손잡고
28년동안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의 외길만을 걸어온
저희 PAGODA는
가장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인을 위해 고안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교육합니다.



파고다외국어학원

종 로 276-0579 압구정 516-0579

신 촌 719-0579 강 남 553-0579

계열사 : 파고다 외국어학원, 파고다 주니어(송파본원, 강서·분당본원)
도서출판 파고다, G-TELP 한국위원회, 월간 가이드포스트
음악이있는 마을 가이드포스트



'정의'의 여신상은 있었지만
여성을 위한 '정의'는 없었다.

<물리학과>에 여성위원회가 드립니다.



제2회 페미니즘문화제 일정표

여성의 눈으로

24일(월)
개막제

오후 6시 가정관 소극장

페미니즘 문화제 주간임을 알리고
문화제 행사의 첫 테이프를 끊는 행사



25일(화)
만화

오후 6시 가정관 318호

비평가와 함께 여성주의 만화읽기의
가능성을 찾아보자



26일(수)
연극

오후 6시 가정관 소극장

너의 자궁을 노래하라 - Coin locker babies
여성주의 문화연구 모임 '마녀'의 공연 후
관련된 내용의 토의 진행

세상을 바라보자

오후 6시 가정관 318호

여성주의 문학과 여성적 글쓰기에 대해
생각해 보는 행사



오후 6시 가정관 소극장

Antonia's line (마린 고리스)
영화 상영 후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는 시간



시네마페끄 영화제
알리는 글 - 생협 가건물 앞 임시 게시판
1 '페미니즘 문화에 대해'
2 '정신대 문제 다시 바라보기'
3. '부모성 같이 쓰기 운동'

27일(목)
문학

28일(금)
영화

24일~28일
그외...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막제

3월 24일 월 오후 6시 가정관 소극장

페미니즘 문화제를 통해 이화안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의 확립과 여성문화의 창출을 통해 주체적 여성으로서 각자가 설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여성무용 살풀이(최은화 외)를 통해 막을 열고, 여성주의 퍼포먼스와 여성의 시각과 주체성을 주제로 한 영상물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고, 페미니즘 문화제 개괄과 개막을 선포한다. 후에 여성락커 황보령씨의 축하공연과 함께 연대의 장을 마련한다.

여성주의 만화 읽기

3월 25일 화 오후 6시 가정관 318호

점차 전문적 장르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만화. 수많은 여성만화작가들과 여성독자들이 있음에도 만화라는 장르속에서 여성주의를 읽어내는 방식이 지금껏 없었다. 현재 만화비평의 가부장적 시각을 비판하고, 여성주의 만화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만화를 여성주의 시각에서 재분석해보고 앞으로 여성주의 만화의 가능성을 타진해본다.



여성주의 연극공연

3월 26일 수 오후 6시 가정관 소극장

여성이 자신의 몸의 주체인가, 강간, 임신, 낙태... 여성에게 주어지는 몸에 대한 억압의 문제제기를 통해 여성의 주체권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스스로 자문해 보도록 한다. 한 여대생이 강간, 임신, 그리고 낙태의 과정들을 겪으며 주위 환경이 제공하는 또는 강제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으며, 여성의 몸에 대한 억압기제가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회의해 볼 수 있도록 물음을 던진다.

여성주의 문학

3월 27일 목 오후 6시 가정관 318호

흔히들 요즘 문학계에 여성작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으며 페미니즘 소설이나 시가 등장하고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보수적인 문학계에서 실제로 문학에 있어서의 여성주의를 읽어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과연 여성주의 문학이 존재하는가. 그 내용에 있어서 뿐 아니라, 여성적인 글쓰기 작업을 비롯한 문학에 있어서의 여성성을 찾아보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한다. 여성주의 문학, 여성적 글쓰기 작업을 고민하고 있는 문학비평가 한 분을 섭외하여, 문학에 있어서의 여성성과 여성주의의 문제, 그리고 현 문학계의 주소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여성영화

3월 28일 금 오후 6시 가정관 소극장

Antonia's Line - 마린 고리스

여성들간의 연대의 끈과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담은 영화로 여성문화의 가능성과 여성연대의 힘, 그리고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사회를 바로보고 논의를 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영화문화비평가 김지혜씨와 함께 영화라는 매체가 갖는 여성주의에 대한 가능성과 기존 주류영화에서 보여지는 가부장적 시각을 탈피한 여성영화의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해 본다.





지난 한해 이화의 많은 학우들을
분노하게 하고 지치게 했던 S대 엽서 사건과
K대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부터 삼성맨 사건,
그리고 너무나도 조용했던 올해 초 강덕경 할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함께 한 사람들,
너무도 당연하게 가슴 속에 품어왔던
가시 하나하나를, 때론 더 아프고 더 힘들지는 몰라도,
꺼내어 이화에,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
무엇보다 여성임에 자랑스러운 사람들.
여기,
여러분과 함께 숨쉬고 있는 이화여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위원회를 기억하십니까?

- '96 3월 제1회 페미니즘 문화제
- 5월 정신대 할머니와의 연대장터
대동제 고대생 난동사건 문제제기 및 해결을
위한 여론화 작업
- 6월 고대에서 이화인 향의 집회 개최
- 7월 학생대회 '성'파트 기획
- 8월 들꽃모임을 창설하여 서울 지역 각 대학과 연대
- 11월 총회, 제2대 이화여성위원회 자치기구로 탄생
- 12월 제2회 페미니즘 문화제 기획단 모집
- '97 1월 각 여성단체와의 연대
- 2월 고대생 집단난동 근절을 위한 대책모임 전개
- 그리고,
3월 제2회 페미니즘 문화제



제2회 페미니즘 문화제에 여러분을 초대하며

흔히들 말합니다. 이화는 여대이고 어차피 여
자밖에 없는데 무슨 여성학을 따로 공부하고
위원회라는 것까지 만들었는지 궁금하다구요.
그러나 우리는 9시 뉴스와 하이틴 로맨스류
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만화책, 그리고 휴웃길
의 새내기 환영 플렛카드의 글귀 속에서도 막
연히 좋다고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문화
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문화는 너무도
태연히 여성학의 메카라 일컬어지는 이화의
곳곳에서 우리의 생각을 한정짓고 있었습니
다. 거리낌없이 행해지는 주위의 모든 것들과

역시나 생각없이 받아들이는 우리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의심해
보기로 했습니다. 20여년 동안 강
요되어 왔던 사회의 시각, 누군가
의 시각을 벗어나 우리가 진정으
로 옳다고 느낄 수 있는 쪽으로 말

입니다. 물론 다르게 보기 혹은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기는 굳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에게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때때로 번거롭거
나 짜증날 수도 있고 가끔은 두려울 수도 있습
니다. 그러나 좀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여성성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여성주의인가, 과연 그것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과연 여성문화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
다. 제2회 페미니즘 문화제, 여기에 우리의 이
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

나

여울, 좋아, 모기
뽕, 라니, 큰님, 쌀, 체크, 하람
라기, 수정, 사과, 당근, 걱정, 별나, 카람, 끌라, 윈더
그리고
은초, 짜투리, 우주, 델라

너

여성주의 문화모임 '마녀', 한국여성예술기획, 시네마매끄,
한국정신대문제 대책 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민주동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
학내 여성학 모임 및 문학 동아리,
이화여대 제29대 총학생회
그리고
페미니즘 문화제와 함께 하는 사람들, 도우미

우리

여성위원회를 지켜보고 고민하는 사람들,
페미니즘 문화제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는 그대



창립 100주년

1997년 2월 19일

함께한 100년, 조흥은행 100년!
고객이 주신 100년 믿음에 감사드리며 고객을 위해,
세계를 향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겠습니다.



1897년 근대화의 기운이 이 땅을 휩쓸 무렵 민족의 자존을 기원하는 최초의 민족은행으로 시작했습니다.
1997년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 땅의 우리은행으로서의 자부심을 지키며 창립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2097년 인류에 공헌하며 고객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100년, 함께할 100년

조흥은행

조흥은행센터 : (02) 3700-4114

100:100
1897-1997